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제31차 회의		
일시	2023. 5. 19(금) 15:00~16: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안건	<input type="checkbox"/> 자문 사항 ○ 2024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보고		
논의사항 (요지)	<p><b>1. 보고사항 - 제30차 회의록 요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가 제30차 회의록을 요약하여 설명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외국인 학생과 관련하여 본교가 코로나 이전 시기에 경쟁 대학인 연대보다 우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비교 분석과 대학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퍼포먼스 인덱스를 갖고 현재 상황은 이런데 이거를 해봤더니 얼마가 늘어났다는 걸 평가하기 위한 인덱스를 구축해서 보여 달라고 요청을 드렸기에 다음에 분석해서 보여달라고 요청함.</li> <li>- 손승현 평의원이 타임라인과 관련하여 5월에 학과 대상 설명회에 해당 안건이 없었는데 지금 추가 답변을 요청하면 상관없이 진행되는지 질의함.</li> <li>- 교무처장이 5월 9일 학과장 간담회에서 10여분 정도 공개되었다고 답변함.</li> <li>- 의장이 해당 내용이 만약 빠져 있다면 32차 회의에서 학과장 통보 여부에 대한 재요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li> </ul> <p><b>2. 자문사항-2024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보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처장이 교육부 방침에 따른 첨단 분야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함.</li> <li>- 의장이 과거에 교육부에서 이공계 정원을 늘려줄 때가 있었는데 본교는 판단을 잘못하여 늘리지 않아 공대 정원이 연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었는데 이번 첨단분야 정원 확대는 이의가 없을 걸로 판단된다고 강조함.</li> <li>- 김호민 평의원이 비 수도권 12개 학교의 정원 순증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국립대인데 사립대와의 불균형 원인에 대하여 질의함.</li> <li>- 교무처장이 최근 교육부에서 지방 거점대학을 발굴하고 국립대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일단 정부의 방향성으로 보이며 지방의 경우 사립대보다 국립대를 우선하는 정책에 대한 학교의 입장 정리 후 교수 유관단체나 협의회를 통하여 의견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li> <li>- 김호민 평의원이 대교협이나 교무처장협의회 같은 체계적인 협의체를 통해 사립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국립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li> </ul>		

# 회 의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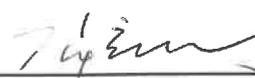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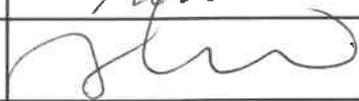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제31차 회의		
일시	2023. 5. 19(금) 15:00~16: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황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장이 과거에 대학의 전기 요금이 많이 비싸서 관련성이 적은 국립대는 빼고 사립대학들의 의견을 모아서 비용 인하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사립대학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화가 안 되어 의견의 일치를 못 보다가 주요 대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교육용 트랙이 만들어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li> <li>- 김효민 평의원이 사립대 등록금을 오랜 기간 동결한 상황에서 국립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문제이며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문제를 못 푸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의장이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의 일정 부분을 사립대에서 맡고 있는데 정부가 사립대를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 같은 통제 중심의 정책에 대하여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사립대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발표 자료를 보면 세종대, 연세대, 과기대 등은 AI(인공지능)학과 관련하여 105개가 넘는 TO를 신청했는데, AI시대에 본교의 비전은 무엇인지, 전기전자공학부에 있는 56명이 AI와 관련이 있는지 질의함.</li> <li>- 의장이 서울대의 경우 첨단융합학부에서 AI 전공처럼 나누었지만 본교는 전기전자공학부 안에 AI나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으며 AI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묶여져 있는데 소프트웨어학부는 소프트웨어만 공부하는데 우리는 융합되어 있고 첨단 전공학부로 분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세종 캠퍼스의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는 AI와 상관없는지 질의함.</li> <li>- 교무처장이 해당 학과는 교육부에서 볼 때 통계 관련 학과로 본다고 답변함.</li> <li>- 김효민 평의원이 해당 학과는 첨단분야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전에 4개 첨단학문 분야에 대해서 정원을 늘려준 적이 있어 혜택을 봤는데 추가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비수도권 학교는 정원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거의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는 줄이고 약학과는 늘리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부연함.</li> <li>-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전체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을 완료함.</li> </ul>		

# 회 의 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제31차 회의					
일시	2023. 5. 19(금) 15:00~16: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호민 평의원이 세종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때 본인이 참가를 못 하면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과 학부 총학생회가 서울캠퍼스와 분리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세종총학생회장이 참가할 수 있게 평위원 수를 한 명 늘리는 내용의 안건을 올릴 수 있을지 질의함.</li> <li>- 의장이 대학평의원들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교내외 단체 대표 성격으로 참석하는 것이고 해당 건은 정관 변경이 필요해서 기획예산처 검토 후 학교 측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절차와 관련하여 간사에게 다음 회의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함.</li> </ul>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14 명	참석내역	손승현, 김진배, 김호민, 조운정, 김문기, 김상덕, 임금님, 성만영	불참내역	홍석희, 박성근, 이정우, 윤희상, 곽영길, 이연숙
	참석자	8 명				
	불참자	6 명				
학교측 참석자	김상중 교무처장					
간사 (정책기획팀 차장)	유종복	(인)	의장	성만영	(인)	

평의원

평의원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제31차 회의		
일시	2023. 5. 19(금) 15: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평의원	성명	서명	
의장	성만영		
교수	손승현	손승현	
교수	김진배	김진배	
교수	홍석희		
교수	김호민		
교수	조윤정		
직원	김상덕	김상덕	
직원	임금님	임금님	
학생	이정우		
학생	박성근		
조교	윤희상		
교우	김문기	김문기	
교우	곽영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이연숙		